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9.(목) 14:00
(지 면) 2026. 11. 20.(금) 조간

공공 AI 대전환의 미래, 한중이 함께 그린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월 19일 경주서 칭화대학과 '제19회 한중 세미나' 개최
- 공공 AI 혁신, 지방소멸 대응, 미래 인재 양성 등 행정 혁신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직무대리 박대민)은 11월 19일 경주 황룡원에서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공공관리학원*과 국내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한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 칭화대학은 1911년 설립된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특화대학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층 인사를 배출하며 중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 교육기관

지난 19년 동안 양국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온 한중 세미나는 매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공통 현안을 선정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육 및 행정 분야 교류·협력의 핵심 소통 창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제적(글로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견고한 신뢰 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공공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미래' 주제로 3개 세션 심층 논의, 50여 명 전문가 참석

올해 세미나에서는 '공공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미래'를 큰 주제로 정하고, 국민 체감형 인공지능(AI) 활용,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미래 인재 양성 등 양국이 직면한 핵심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국민 체감형 공공 인공지능(AI)과 스마트 민생 해결'을 다룬 1세션에서는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가 인공지능(AI) 기반의 민주정부 구현과 디지털 민생 서비스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멍칭궈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공공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한국 지방정부의 디지털 기술 기반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으며, 우용핑 칭화대학 교수가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통한 균형발전 모델을 제안했다.

3세션 ‘공공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지능형 미래 인재 양성’에서는 김영미 상명대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공무원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혁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주쉬펑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원장이 중국의 시대별 인재 양성 전략 변화와 칭화대학의 전문 교육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총평을 통해 양국 공무원 교육기관이 미래형 인재 교육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영상 격려사와 함께 박대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최석준 경주시 부시장, 주쉬펑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원장 등 양국 행정·교육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칭화대학과의 교육 분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이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더욱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성락 (063-907-505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윤재웅 (063-907-5052) 정지원 (063-907-50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